



지난 1년 간의 국채시장의 발자취 국채 백서 발간(「국채 2025」)

- 2025년 226.2조원 국고채 발행, 연간 발행규모 200조원 최초 돌파
- 올해는 WGBI 자금의 차질없는 유입 및 안정적 국채시장 관리에 총력

재정경제부는 2025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주요 통계, 2025년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 백서, 「국채 2025」를 발간하였다.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“2025년 우리 경제는 자국우선주의 통상외교와 보호무역주의 확산,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직면”하였지만, 우리 국채시장은 “226.2조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연간 발행규모 200조원을 최초로 돌파했으며, 추경, 재정 신속집행 등 경제회복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버팀목”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.

아울러 “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('26.4월)에 앞서 해외 투자설명회, 외국인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, “2025년 외국인 국채투자가 역대 최대규모(58.7조원)를 달성하며,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도 역대 최고치(25.7%)를 경신하였다”고 강조하였다.

한편, 2026년에는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장 인프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, 정부 내에 시장동향 분석 및 리스크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국채 발행 및 국채시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.

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국채 시장을 소개 및 홍보하기 위해 영문판 「Korea Treasury Bonds 2025」도 함께 발간했으며, 본 백서는 재정경제부 온라인 홈페이지(www.mofe.go.kr) 또는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홈페이지(ktb.moef.go.kr)에서도 전자문서(PDF)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
※ 「국채 2025」 주요 내용은 [별첨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국고실 국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	김희운 (gia0412@korea.kr)



1 2025년 국채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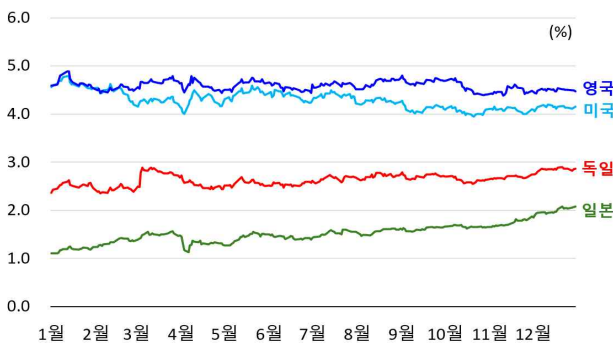
① (금리) 글로벌 시장에 동조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, 4분기 이후 상승 전환

- (해외)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인하*하였으나, 美 상호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리 하락폭은 제한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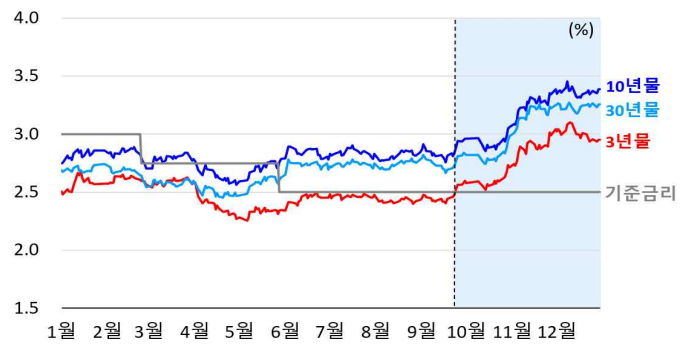
* (ECB) 1·3·4·6월 0.25%p씩 인하 / (FED) 9·10·12월 0.25%p씩 인하

- (국내) 상반기 글로벌 금리 인하와 동조 추세를 보였으나, 4분기에는 환율 상승,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우려 등으로 크게 상승

2025년 글로벌 금리(10년물)



2025년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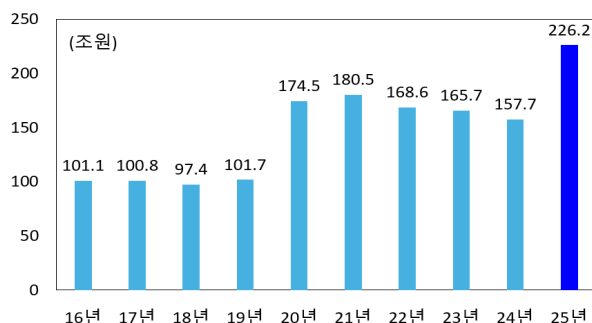


② (발행) 국고채 총 226.2조원 발행('24년 157.7조원 대비, + 68.5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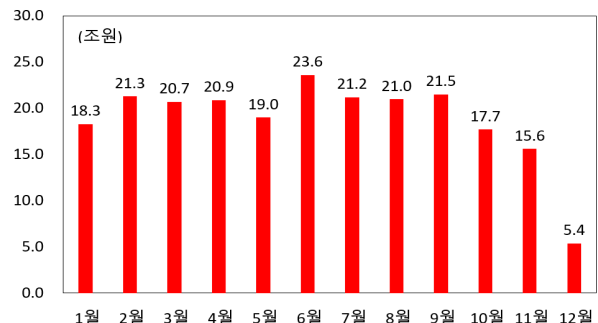
- 민생회복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발행하여 경기 회복에 기여

* 국고채 발행량 : ('24년) 157.7조원 → ('25년) 226.2조원

최근 10년 연도별 국고채 발행 추이



2025년 국고채 월별 발행량



① WGBI 편입 대비 외국인 국채투자 활성화

-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, 외국인의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

→ '25년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*(297.4조원) 및 보유비중**(25.7%)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

*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(조원) : ('22) 193 → ('23) 219.5 → ('24) 238.7 → ('25) 297.4

**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(%) : ('22) 20.5 → ('23) 22 → ('24) 22.8 → ('25) 25.7

②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개선('25.3월)

- 만기보유 부담을 줄인 5년물을 신규 발행하고, 연간 매입 한도를 상향(1억원 → 2억원*)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접근성·편의성 제고

* 조세특례법상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한도(2억원)와 개인용국채 매입한도 일원화

- 매월 일정액을 자동 투자할 수 있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 도입, 청약기간 확대, 마감시간 연장 등 편의성 제고

* 청약기간: (기존) 3영업일 → (개선) 5영업일 / 마감시간: (기존) 15시 30분 → (개선) 16시

③ 3·10년물 국채선물 야간 거래 실시

- 야간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국채선물 야간거래(18:00~^{+T1}06:00)를 도입

- 시차가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, 주간거래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시장 안정성 제고를 도모